광주시민도시공원이용목적71%가'운동'

광주시의회, 이용실태·시설 만족도 등 여론조사 응답자 75.7% "도시공원 이용 중" 만족도 70.3% 반려동물 출입, 찬성 50.5%, 반대 46.3% 입장차

광주시민 10명 중 8명꼴로 도시공원을 이 용중이고, 공원을 찾는 이유로는 운동 때문 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용 만족도가 70%에 달한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기 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도시공원 이용실태와 공원시설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7%가 "공원을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 빈도는 '주 2~3회'가 48.2%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24.9%), '월 1회 정도'(20.9%) 가 뒤를 이었고, 이용 시간은 오후(34.9%)와 저녁(33.5%) 시간대가 가장 많았다.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운동'

이 7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휴 식'(20.6%), '만남 장소'(3.9%), '반려동물 산 책'(2.3%) 순이었다.

반면,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 변에 공원이 없거나 이용시설이 부족해서'라 는 응답이 72%에 달해 생활공간 주변 공원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내 시설이용 만족도는 70.3%로 나타 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산책로'에 대한 만족도가 77.2%로 가장 높았고, '녹지공간'(73.6%), '운동기구'(71.6%), '화장실'(65.2%), '안전시설'(63.7%)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았다. 다만, 화장실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30.1%에 달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우선 개선·보완돼야 할 사항으로는 29.0% 가 '공원 내 시설물 관리'를 우선적으로 꼽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진=광주시 제공)

았고, 이어 '안전관리 강화'(22.6%), '반려 동물 이용수칙 관리'(22.5%), '녹지경관 조 성'(13.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에 대해서는 '자 유롭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1%, '(관리수칙 준수를 전제로) 조건부 찬 성한다'는 의견과 '이용자 안전과 위생을 위해 출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44.4%와 46.3%로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찬성 의견이, 60대 이상은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은 "이 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 을 다하겠다"며 "특히, 공원 내 반려동물 동 반 출입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상생가능 한 성숙한 반려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 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광주시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할 '제7기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16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변호사회계사교수 광주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16명 위촉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광주 시교육청 7기 청렴 시민감사관이 본격 활동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 현할 '제7기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16명을 위 촉했다고 5일 밝혔다.

청렴 시민감사관은 건축·토목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교육전문가, 경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교 육행정 실현을 위해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시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가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감시·평가한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남도장터US' 현지 맞춤형 마케팅 마련 분주 컨설팅 중간보고회서 주류시장 진출 목표 단계적 전략 등 토론

전남도가 지난 9월 미국에 개장한 농수산식 품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유에스(US)'의 미 국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남도장터유에스 현지 운영사 크리에이시브 LLC, (사)전라남도농수산식품온라인수출협회 회원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남도장터유에스 외신홍보 컨설팅 중간보고회를최근 개최해 수출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남도장터유에스 활성화를 위한 열띤 트로의 편설인

컨설팅 수행사인 브라이트벨 서헌주 박사 등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케이팝 (K-POP)과 한국영화(K-MOVIE)의 주요 소비층 분석을 통한 남도장터유에스의 마케팅 대상을 정하고 남도장터유에스의 브랜드 경쟁력과 정체성 확보 방안, 단계적인 마케팅 실행방안 등을 제시했다.

서헌주 박사는 "현재까지 한국식품은 주로 해외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한인시장에 유통하 는 수출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해외 현지 주류시장 진출을 목표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음악과 영화가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지금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남도장터유에 스는 개설 초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재미동포 를 대상으로 한 집중 마케팅을 진행 중"이라며 "쇼핑몰 안정화 이후 입점제품의 고급화와 다 양화, 현지화를 통해 미국 내 주류시장에 진출 하도록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 라고 말해다

전남도는 12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컨설 팅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반영해 2023년 해 외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마케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세부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 소방헬기 25년 만에 교체…다목적 헬기 도입

광주와 인접 시·군의 상공을 누비며 각종 임무를 수행했던 광주소방 헬기가 25년 만에 교체되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 이내 이탈리 아 레오나르도사의 헬기(AW-139) 1대를 인수한다. 도입을 앞둔 이 헬기는 구조 임무 적합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기종이다. 현재 소방·해경·민간항공사 등 다수가 운용중이다.

이 소방헬기는 ▲주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자동비행장치와 야간투시경(NVG) 장치 탑재 ▲국내 전역 전자 지도 ▲전방 시야 확보 장비(EVS) ▲지상 충돌 경보 장비(EGPWS) ▲ 공중충돌 경고 장비(TCASII)를 보유하고 있어 안전한 항공구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광주시나 인접 시·도에서 수도권 주요 병원까지 무급유 비행과 지역 내 임무 수행 중 재급유 없는 연속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15000 이상의 담수가 가능, 산불 진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는 노후화 한 항공대 청사도 신규 헬기 규격에 맞춰 재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소방이 현재 운용중인 소방헬기는 1997년 5월 도입한 기종(BK117B-2)이다. 2시간 40분의 짧은 항속시간과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이송 때 연료 탑재량 부족, 산불진화에 비효율적인 담수용량(6700), 안전장치와 자동비행 등최신 성능 부재로 항공 임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 유모차 휠체어 살균소독기 7대 설치

광주시는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 등 감 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 주요 시설 에 유모차·휠체어 살균 소독기 7대를 설치했 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설치장소는 ▲동구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 1층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1층 ▲ 남구 남구청 1층 민원실 내부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 1층과 중흥도서관 1층 ▲광산구 광산구 보건소와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1층 등이다.

이번 살균 소독기 설치는 시민 제안(시민참 여예산)에 따른 것이다. 설치된 살균 소독기는 각종 세균·바이러스·곰팡이를 살균하고, 아토 피·비염 등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안전장치가 내장돼 있어 소독기 안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소독 중 문이열리면 자동으로 정지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